

그러다 정신을 차리고는 말했네.

“죽음은 좋은 것이라니까, 또 비르지니도 행복하다니까, 저도 죽어서 비르지니와 함께할래요.”

이렇게 위로가 되길 바랐던 나의 의도는 그의 절망을 살찌우는 데 쓰일 뿐이었네. 나는 헤엄쳐 나오려는 의지도 없이 강 한 가운데 깊은 곳으로 기어들어가는 친구를 구하려는 사람 같았어. 고통은 그를 물속으로 가라앉혔네. 이 얼마나 비통한 일인가! 초년의 불행이란 인생살이로 들어가도록 준비시켜주는 것일진대, 폴은 그걸 느껴보지도 못했으니 말이야.

나는 폴을 그가 살던 곳으로 데려갔네. 집에서는 폴의 어머니와 라 투르 부인이 여전히 계속해서 깊어만 가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지. 마르그리트도 본 중 가장 상심이 컸어. 사소한 고통은 가볍게 넘기고 마는 쾌활한 성격의 사람들이 커다란 슬픔에는 잘 버텨내지 못하는 법이야.

그녀가 내게 말했네.

“오, 우리 착한 아저씨! 제가 지난밤에 하얀 옷을 입고 나지막한 숲 한가운데도 있다가 그윽한 정취를 풍기는 뜰 한가운데도 있다가 하던 비르지니를 본 것 같았어요. 비르지니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. 저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. 그런 다음, 웃는 표정으로 폴에게 다가가, 그를 데리고 같이 가버렸어요. 내가 애써